

대학생의 정당 인식과 정당 지지에 관한 이론

박명호 | 동국대학교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유권자가 개별 정당에 대해 갖는 '인지, 이해, 감정, 호감도, 평가 그리고 기대'를 이해하고, 정당 인식과 정당 지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기존의 정당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좌-우 이데올로기라는 총론적 차원 또는 정당 호감도라는 감정적 차원에서 접근한 반면,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균열구조를 반영하는 대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정당인식을 측정했다. 경험적 분석결과, 본 연구는 정당 간 차별성이 존재하며, 정당별 문제 해결 능력이 사안에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경제 발전의 경우 한나라당, 남북 관계 발전의 경우 통합민주당이 적합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 중심의 차별적 정당인식은 정당 지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당이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일정 형태로 유권자 심리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반화의 한계가 있어, 향후 후속연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한국인에게 정당은 무엇일까? 정당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유권자들은 사안에 따라 정당별로 상이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이러한 유권자의 정당 인식은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유권자의 대다수가 나쁜의 지지 정당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정당 체계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집약해내고 주요한 사회적 갈등을 정치화(politicize)시켜 국민적 소통과 합의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정당과 정당 체계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비로소 유권자의 정당 간 차별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은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다.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무당파'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무당파층이 56.3%에 이른다(경향신문 2008.12.26). 2009년 1월 조사에서는 무당파층이 64.9%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GNN Korea 2009.1.14). 최근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가장 높게 나온 기록은 50%를 넘었다(내일신문 2009.2.6). 각종 조사에서 무당파층은 대체로 36.6%에서 47.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내일신문 2009.3.23; Research and Research 2009.3.25).

물론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문명사적 수준의 사회 변동이 정당 정치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측면도 있다(조대엽 2009). 정당 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갈등의 보편화 또는 일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상적 삶의 정치화 경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갈등의 정치화와 생활 정치 이슈의 공공화(publicize) 현상은 정당 정치의 유연화 또는 개방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정당 정치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의 기능은 시민 단체 등에 의해 대체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당은 민주 정치 과정의 핵심적 기제이다.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 모델이 현대 정치에서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을 담보

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Webb and White 2007). 그렇다면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경험적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즉,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이 차별적 정당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일부 연구에서 후보 간 차별성의 존재를 확인하고(가상준·윤종빈 2009), 정당별 선점 이슈가 있으며(중앙일보 2006.5.2) 지지 정당에 따라 정책 선호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었다(중앙일보 2009.2.23).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발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당별 해결 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과 정당 지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유권자의 정당 인식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선택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여러 논의와 연구를 크게 구분하면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장기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은 ‘정치 이념’과 ‘정당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즉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정치 이념이나 정당에 대한 태도처럼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선행 요인들이 여타 단기적 요인들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들 장기적 요인들이 유권자의 최종적 투표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Berelson et al, 1954; Finkel 1993; Lodge and Hamill 1986).

결국 선거 운동을 통해 장기적인 요인들이 활성화되고, 최종적 투표 행위는,

표면적으로 보기에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활성화된 장기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유권자의 정당 인식이 중요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정당 인식이 궁극적으로 정치 이념의 결정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치 이념이 향후 정당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추동하는 정도보다는 역으로 정당에 대한 태도가 정치 이념의 변화와 그 방향성을 규정하는 정도가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정한울 2007).

물론 장기적 요인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시각도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장기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인하면서 객관적 상황에 반응하는 단기적인 요인들의 반응성과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Fiorina 1981; Mckuen 1998).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에 대한 논란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당에 대한 태도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요인이자 단기적 요인이 정당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때 정당에 대한 태도는 장기적 정치 사회화 과정의 산물로서 형성된 정당 일체감인 경우도 있고, 특정 시점에 부각된 이슈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단기적으로 형성된 정당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다.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는 결국 전통적 시각과 수정주의적 시각의 공통된 요소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태도를 '정당 인식'으로 이해한다. 정당 인식은 유권자가 개별 정당에 대해 갖는 '인지, 이해, 감정, 호감도, 평가 그리고 기대' 등을 의미한다.

오래 전부터 유권자의 정당 인식은 민주 정치의 주요 전제 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Lipset은 안정된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양한 부분으로부터의 지지 기반을 가진 주요 정당들이 너무 근접한 유사성을 가질 경우 민주주의의 기초를 상실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Lipset 2000). 나아가 유권자의 정당 인식은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당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을 모두 갖고 있는 유권자들과 좋아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이재철 2006). 따라서 유권자의 정당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당 정치의 발전은 어렵다.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의 부재는 책임 정당 정치의 구현을 막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가상준·윤종빈 2009).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통해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이해 하려는 것이다. 사실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위치 파악을 통한 정당 인식 이해 시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정당 체계의 이데올로기적 분극성(polarization)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유권자의 정당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정당 체계의 특성을 이데올로기적 분극화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당 체계의 분극화 정도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Downs와 Sartori가 대표적이다. Downs(1975)는 정당과 유권자들이 좌우의 이념적 연속선상 위에서 정렬된다는 정당 체계의 공간 모델을 제시했다. 이때 정당 체계의 분극화 정도는 정당의 수(numbers)로 표현되었다. 그는 양당제의 경우 정당들이 이념 선상의 중앙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다당제의 경우 정당들이 좌우 선상에서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때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수렴(양당제) 또는 분산(다당제) 노력은 결국 유권자의 정당 인식의 반영이다.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은 진보적으로 또 어떤 정당은 보수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여 선거에서 투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권자 정당 인식의 결과물이 바로 정당 체계의 분극화 정도다.

따라서 정당 체계의 분극화 설명은 유권자의 정당 인식에 대한 직접적 분석은 아니다. 선거 결과로 나타난 정당 체계의 이데올로기적 분극화 정도에 따른 유권자 정당 인식에 대한 간접적 설명의 시도다. 예를 들면 정당의 수가 많으면 유권자 정당 인식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반대의 경우는 유권자의 정당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 다양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정당 체계의 분극화에 대한 또 하나의 연구는 Sartori(1976)다. 물론 Sartori의 연구도 정당 간 정치적 경쟁을 이데올로기적 공간 구조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한 Downs의 논리에서 출발했다. 다만 Sartori는 정당 체제 내의 분극화 정도에 보다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별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연속선상에서의 위치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원심적이며 구심적인 힘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한다. Sartori의 논리에 따른 후속 연구들 또한 '정당의 수'를 바탕으로 정당 체계의 분극화 정도를 측정하여 Downs의 접근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당 체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두 지표—파편

화(fragmentation)와 분극화—는 일맥상통한 것이기도 하다. 정당의 수가 많을수록 적은가 하는 것은 특정 정치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분포 및 정치 상황의 안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분포가 궁극적으로 해당 정치 체제의 불안정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당 체제의 파편화 정도(degree of fragmentation)가 바로 분극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Dalton(2008)의 연구에서 보듯 정당 체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두 축인 파편화와 분극화 정도는 정당 체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지표이다. 따라서 정당의 수—정당 체제의 파편화 정도—는 알기 쉽고 서로 비교하기 용이하여 모든 정당 체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당 체제 파편화 정도는 정당 체제 특성의 한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Dalton(2008)에 의하면 정당 체제 분극화는 계급과 정당 선호에 있어 보다 강한 상관 관계를 보여 주었다. 나아가 투표 참여 정도도 정당 체제의 분극화 정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당의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연계 측면에 대한 검토는, 정당 체제 파편화 정도가 아니라 정당 체제 분극화 정도에 의한 분석이 더욱 적실성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정당 체제의 분극화 정도 측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식은 정당의 수, 극단주의적 정당의 수 또는 집권당의 득표율 그리고 정당의 정강 정책 분석 등이었다. 이때 정당 체계의 파편화 지수(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즉 정당의 수를 통해 정당 체계의 분극화 정도를 설명하는 것은 정당 체계의 분극화 정도를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는 ‘간접적’ 방식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Dalton(2008)의 분극화 측정 방식은 기존 접근과 달리 정당 체계의 특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물론 그의 연구도 Downs의 논리에 따라 정당 정치는 좌우 차원에서 구조화되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이 모든 유권자들이 진보-보수의 철학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좌우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위치가 한 나라의 정치적 경쟁을 구조화하는 이슈와 균열 구조를 요약한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그의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Dalton(2008)의 연구는 CSES(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 자료

를 활용하여 정당 체제의 분극화 정도를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CSES 자료는 응답자에게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표시하도록 한 다음,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표시하도록 한다. 유권자들의 주요 정당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위치 표시를 바탕으로 Dalton은 정당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분극화 정도를 측정한다.

Downs, Sartory 그리고 Dalton의 연구는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좌-우의 이데올로기적 연속선상에서 단순화하여 이해하려는 것이다.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좌-우라는 이념적 차원으로 일원화 또는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적 이해 차원의 설명이다. 감정적 차원에서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측정하는 방식도 있다. 정당 호감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결국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유권자의 개별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위치에 대해 직접 표시하도록 하기도 하고, 선거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의 수를 세기도 했다. 그리고 정당의 정강 정책을 분석하기도 했다.

최근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전에 비해 보다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Rohrschneider and Whitefield(2009)의 연구는 이슈 주목성(issue salience)을 측정하기 위해 개별 정당이 특정 이슈를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만약 한 정당이 어떤 이슈를 강조하는 것으로 유권자(이 경우는 전문가)들이 평가한다면, 그 정당이 해당 이슈에 대해 강점을 가진 것으로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유권자의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 인식과 정당별 이슈 해결 능력 이해는 경제 투표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경제적 전당 투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 중 어떤 것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정당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Kiewiet 1991).

이는 동시에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의 개념에서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이슈 균열 구조를 선택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Dalton and Wattenberg 2000; Klingemann, Volkens and Bara 2006). 이때 균열 구조는 정당과 정치 엘리트가 자신들의 득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유권자와 상호 작용하는 접점이다. 이렇게 보면 유권자의 정당 인식은 한 사회의 균열 구조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균열 구조에 대한 분석은 균열 구조 부재, 단선적 균열 구조, 그리고 복합적 균열 구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Rohrschneider and Whitefield 2009), 한 사회의 균열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1)사회 구조적 요소-인구 통계학적 집단, (2)일정한 가치와 믿음, (3)제도적 또는 조직적 요소-정당' 이다(Arian and Michal Shamir 2008). 이때 유권자의 정당 인식은 사회적 균열 구조의 정치화(politicize)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유권자의 정당 인식은 정당 간 정치적 경쟁이 벌어지는 계기로 작용하는 '정당 균열 구조' 이기 때문이다(Rohrschneider and Whitefield 2009).

우리나라에서도 유권자 정당 인식의 존재 가능성이 여러 차례 확인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07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후보자들의 정책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49.6%, 그리고 '매우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14.9%로 나타났다. 물론 후보 간 정책적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31.5%로 유권자 3명 중 1명은 정책적 차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가상준·윤종빈 2009).

정당별 지지자 단위에서는 적어도 정책적 우선 순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성장 우선의 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비중(68.6%)이 복지 우선 정책 선호(31.4%)를 압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성장 우선 정책 선호는 54.9%이고 복지 우선 정책 선호는 45.1%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9.2.23).

이상과 같은 유권자의 정당 인식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 정당 인식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앞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유권자가 개별 정당에 대해 갖는 '인지, 이해, 감정, 호감도, 평가

그리고 기대' 등으로 규정했다. 이 중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정당에 대한 기대'에 초점을 두고 이를 '특정 사안에 대해 유권자가 특정 정당이 여타 정당에 비해 더욱 잘할 것으로 믿거나 또는 기대하는 심리'로 이해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유권자 정당 인식 개념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과거의 접근 방식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첫째, 개별 정당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한 정체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정당 인식을 파악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정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정당이 잘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개별 정당에 대한 호감도 측정이 갖는 감정적 차원의 정당 평가에서 이슈 중심의 이성적 정당 평가를 통해 정당 인식을 파악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 또는 사안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측정할 수 있을까? 우선 경제 관련 사안이다. 다양한 균열 구조 중 경제와 관련한 균열 구조가 모든 사회에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이다(Budge et al. 1987). 동시에 이는 Lijphart(1999)가 사용한 7가지 사회 균열 구조 중 사회 경제적 측면과 관련 있다(Stoll 2008).

또 하나의 이슈는 남북 관계 발전 사안이다. 이 사안은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 균열 구조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구 동구권 국가에서 민주화 이후 나타나는 '공산주의 유산'에 대한 논란과 같은 성격의 문제이다(Rohschneider and Whitefield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 성장과 남북 관계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정당'은 무엇인지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측정하고 정당 지지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 분석과 논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4월 동국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

이다. 조사 대상은 모두 206명으로 남학생 101명 여학생 105명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은 평균 연령 22.7세의 사회 과학 전공 3, 4학년이었다.

다음의 <표 1>은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요인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소속 정당을 고려한 경우가 70%에 육박한다. 물론 후보자의 인물과 능력, 공약과 정책, 정치 이념 그리고 도덕성 등도 후보 선택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총선의 경우 정당 요인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 대상자들이 나름의 정당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의 정치 이념과 공약과 정책은 소속 정당을 통해 일정 형태로 유권자에게 인식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또한 정당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조사 자료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8년 총선 후 실시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2008 총선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 방식이 아니라 여러 요인 중 어떤 요인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했는지 물어 후보 선택 시 유권자들이 고려한 요인의 상대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의 33.1%가 정당을 고려했고, 뒤이어 인물과 능력이 30.6%, 정책과 공약이 23.8%로 나타났다(2008 총선 한국정치학회 조사).

하지만 2007년 대선의 경우는 다른 상황이었다. 2007년 대선 조사 결과를 보

<표 1> 총선 후보 선택 시 고려 사항

(단위: %)

대상/구분	전혀 고려 하지 않음	별로 고려 하지 않음	보통	약간 고려	매우 고려
인물과 능력	9.9	9.9	21.6	40.5	18.0
공약과 정책	11.7	14.4	19.8	32.4	21.6
소속 정당	9.0	17.1	5.4	28.8	39.6
정치 이념	9.0	13.5	31.5	36.9	9.0
도덕성	6.3	14.4	24.3	33.3	21.6
출신 지역	39.6	27.9	15.3	14.4	2.7
주변 평가	21.6	16.2	20.7	36.0	5.4

면, 유권자들은 후보 능력 32.9%, 정책과 공약 31.5%, 도덕성 13.2% 그리고 소속 정당 10.8%의 순으로 후보 선택 기준을 고려했다(2007 대선 한국정치학회 조사). 소속 정당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 선거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정당 중심의 선거가 아닌 인물과 후보 중심이라는 것을 말한다.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화된 선거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들이 총선 후보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인 중 상대적으로 소속 정당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표 2>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표 2>를 보면 조사 대상자들은 2008 총선에서 정당별 정책적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자 절반 가까이가 정책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정당을 인식하는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49.6%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2008년 총선의 경우 큰 차이가 있었다는 응답이 12.2%와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응답이 53.4%로 전체의 65.6%가 정당 후보자 간 차이를 느낀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

2007년 대선 조사와 2008년 총선 조사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전체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 집단의 정당별 정책 차별성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23세로 이들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한국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기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젊은 층의 정당별 정책적 차별성에 대한 인식은 향후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한 조건의 하나를 충족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하다.

<표 2> 정당별 정책 차별성 인식

(단위: %)

전혀 차이 없다	별로 차이 없다	약간 차이 있다	매우 차이 있다
2.5	48.3	37.4	11.8

그렇다면 조사 대상자들은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떤 정당이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즉 어떤 정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

〈표 3〉은 사안별 정당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 발전은 한나라당, 남북 관계 발전은 통합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더 보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에 있어 자유선진당과 친박(親朴)연대 등 이른바 보수 정당을 선택한 응답까지 합하면 조사 대상자의 2/3 전후가 보수 정당의 경제 발전 주도 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북 관계 발전 사안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통합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해결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정당별 정책적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별로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이슈 영역으로 볼 수 있었던 영역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창조한국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득 분배 개선의 경우 조사 대상자들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회 변화와 개혁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영역에서 통합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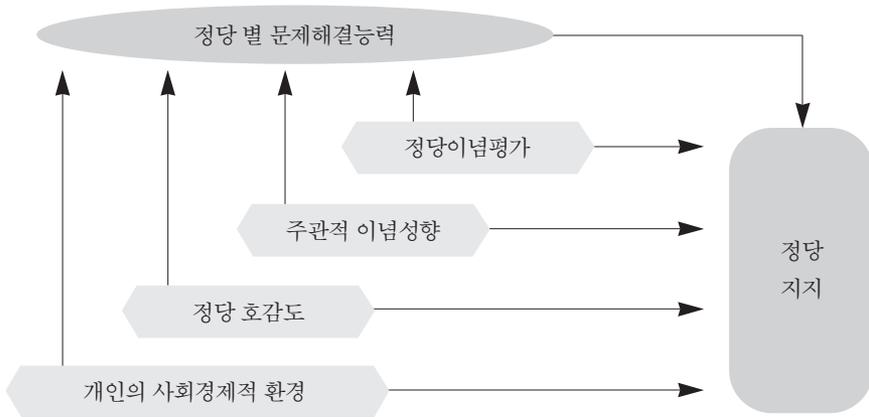
〈표 3〉 정당별 해결 이슈 영역

(단위: %)

	통합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친박 연대	진보 신당	창조 한국당	없음
경제 발전	2.5	54.7	3.4	0.5	1.0	8.9	1.0	28.1
남북관계발전	52.5	8.9	0.5	9.4	0.5	3.0	4.0	19.3
소득 분배개선	10.8	4.9	1.0	36.0	0.5	8.9	15.8	22.2
사회 변화와 개혁	6.9	9.9	3.4	16.7	1.0	20.2	20.7	21.2

Note: 기타 정당이 제외되어 전체의 합이 100%가 아님

〈그림 1〉 분석 구도



리고 진보신당에 뒤지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에도 밀렸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이 대학생 집단으로 제한되어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민주당의 정체성 혼란을 반영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 집단이라는 젊은 층으로부터 민주당이 외면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어떤 요인들이 정당별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가져 오고 궁극적으로 정당 지지를 결정할까? 〈그림 1〉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가 사안별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정당의 선택은 정당 이념 평가, 주관적 이념 성향, 정당 호감도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나아가 조사 대상자의 정당 지지는 이러한 변수에 정당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인식을 추가한 모델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즉 경제 문제 해결 능력 정당에서 한나라당을 선택한 경우 이는 한나라당 이념 평가, 주관적 이념 성향, 한나라당 호감도, 가족 경제 수준, 연령 그리고 성별에 의해 결정된다. 통합민주당 분석의 경우 사안은 남북 관계 발전으로, 정당 이념 평가와 호감도는 통합민주당을 대상으로 교체되어 동일한 방정식이 적용된다.

$$\text{Logit}(Y_i) = \alpha + \beta_1 X_{i1} + \beta_2 X_{i2} + \beta_3 X_{i3} + \beta_4 X_{i4} + \beta_5 X_{i5} + \beta_6 X_{i6} + \epsilon_i$$

Y: 경제 문제 해결 정당 선택 (한나라당 선택 1, 그 외 정당 선택 0)

X₁: 한나라당 이념 평가 (진보-보수; 0-10)

X₂: 주관적 이념 성향 (진보-보수; 0-10)

X₃: 한나라당 호감도 (싫어함-좋아함; 0-10)

X₄: 가족 경제 수준 (하위-상위; 1-5)

X₅: 연령

X₆: 성별

경제 문제 해결 정당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이 어떤 정당을 선택했는지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한나라당 선택 또는 그 외 정당 선택으로 0과 1의 값만을 취하는 더미 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로짓 회귀 분석(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표 4〉는 어떤 요인들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이 경제 문제 해결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의 독립 변수 중 주관적 이념

〈표 4〉 경제 문제 해결 정당-한나라당 선택

변수	
한나라당 이념 평가	0.011(0.014)
한나라당 호감도	-0.019(0.017)
출신지	-0.236(0.163)
경제 수준	-0.156(0.108)
주관적 이념 성향	0.34*** (0.086)
성별	0.222(0.384)
연령	-0.107(0.1)
상수	2.16(2.729)
사례 수(N)	200
가능도비(Likelihood Ratio)	-125.505
가능도비 검정(LR Test)	Likelihood $\chi^2 = 24.25$ (p < 0.01)

*p < 0.1; **p < 0.05; ***p < 0.01

성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적 조사 대상자일수록 경제 문제 해결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로짓 회귀 분석의 계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선형 관계가 아닌, 비선형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즉,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의 실제 관측치가 아닌 (0, 1), 종속 변수가 나타날 확률을 나타내는 잠재 변수와 선형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며, 이에 따라 로짓 분석의 계수를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로짓 분석의 계수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각 독립 변수의 승산비(odds ratio)를 구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김준석·김민선 2009).

〈표 5〉는 경제 문제 해결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선택한 경우의 승산비를 보여 준다. 통상적으로 승산비가 1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당선 확률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승산비가 1보다 작거나 클수록 두 개의 범주 변인이 높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박광배 2007). 이에 따르면 주관적 이념 성향의 승산비는 1.4로서 이는 보수적 조사 대상자가 경제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을 선택할 승산이 1.4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통합민주당을 남북 관계 발전에 상대적으로 능력 있는 정당으로 선택한 경우는 한나라당 경우와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표 5〉 경제 문제 해결 정당-한나라당 선택에 대한 승산비

변수	계수(β : Coefficients)	승산비(Odds Ratio)	표준편차1단위 변화에 따른 승산비
한나라당 이념 평가	0.011	1.011	17.002
한나라당 호감도	-0.019	0.981	13.694
출신지	-0.236	0.79	0.973
경제 수준	-0.156	0.855	1.513
주관적 이념 성향	0.33***	1.404	1.983
성별	0.222	1.249	0.501
연령	-0.107	0.898	1.909

*p<0.1; **p<0.05; ***p<0.01

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통합민주당의 이념을 진보적으로 평가할수록 남북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 통합민주당을 선택했다. 하지만 부록에서 보듯 이 모델의 승산비를 보면 이들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의 영향력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의 다음 단계는 경제 문제 해결 정당(남북 관계 발전 문제 해결 정당)으로 한나라당(통합민주당)을 선택한 경우의 한나라당(통합민주당) 지지에 대한 영향력 측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유권자가 개별 정당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이슈에 따라 정당별로 상이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권자들이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민주당(한나라당)을 남북 관계 발전(경제 성장)에 가장 적합한 정당으로 선택한 조사 대상자들은 통합민주당(한나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Logit}(Y_i) = \alpha + \beta_1 X_{i1} + \beta_2 X_{i2} + \beta_3 X_{i3} + \beta_4 X_{i4} + \beta_5 X_{i5} + \beta_6 X_{i6} + \beta_7 X_{i7} + \epsilon_i$$

Y_i: 한나라당 지지 (한나라당 지지 1, 그 외 정당 지지 0)

〈표 6〉 남북 관계 발전 해결 정당-통합민주당 선택

변수	
민주당 이념 평가	-0.02**(0.008)
민주당 호감도	-0.018(0.015)
출신지	-0.092(0.158)
경제 수준	-0.065(0.104)
주관적 이념 성향	-0.005(0.076)
성별	-0.545(0.378)
연령	-0.18*(0.096)
상수	5.945**(2.679)
사례 수(N)	200
가능도비(Likelihood Ratio)	-128.445
가능도비 검정(LR Test)	Likelihood $\chi^2 = 19.87$ (p<0.01)

*p<0.1; **p<0.05; ***p<0.01

- X₁: 한나라당 이념 평가 (진보-보수; 0-10)
- X₂: 주관적 이념 성향 (진보-보수; 0-10)
- X₃: 한나라당 호감도 (싫어함-좋아함; 0-10)
- X₄: 가족 경제 수준 (하위-상위; 1-5)
- X₅: 연령
- X₆: 성별
- X₇: 경제 문제 해결 정당-한나라당 선택(한나라당 선택 1, 그 외 정당 선택 0)

〈표 7, 8〉은 본 연구 조사 대상자들의 한나라당 지지에 대한 여러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예상했듯 경제 문제 해결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선택한 경우와 보수적 유권자들의 한나라당 지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은 조사 대상자일수록 한나라당을 지지할 가능성도 높았다.

승산비의 경우 한나라당을 경제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정당으로 선택한 유권자들의 한나라당 지지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체로 3.9배 높

〈표 7〉 한나라당 지지

변수	
한나라당 이념 평가	0,009(0,014)
경제 문제 해결 정당(한나라)	1,366*** (0,426)
한나라당 호감도	0,029(0,022)
출신지	0,041(0,193)
경제 수준	0,32** (0,134)
주관적 이념 성향	0,036*** (0,103)
성별	-0,168(0,472)
연령	-0,079(0,126)
상수	-3,452(3,446)
사례 수(N)	200
가능도비(Likelihood Ratio)	-92,122
가능도비 검정(LR Test)	Likelihood $\chi^2 = 49,06(p < 0,01)$

*p < 0,1; **p < 0,05; ***p < 0,01

〈표 8〉 한나라당 지지에 대한 승산비

변수	계수(β : Coefficients)	승산비(Odds Ratio)	표준편차1단위 변화에 따른 승산비
한나라당 이념 평가	0.009	1.009	17.002
한나라당 호감도	0.029	1.029	13.694
경제 문제 해결 정당-한나라 선택	1.366***	3.921	0.499
출신지	0.041	1.041	0.973
경제 수준	0.32**	1.377	1.513
주관적 이념 성향	0.36***	1.434	1.983
성별	-0.168	0.845	0.501
연령	-0.079	0.924	1.909

*p<0.1; **p<0.05; ***p<0.01

〈표 9〉 통합민주당 지지

변수	모델 2-2
민주당 이념 평가	-0.216*(0.128)
남북 관계 해결 정당(통합민주당)	0.795*(0.452)
민주당 호감도	0.135(0.018)
출신지	-0.227(0.206)
경제 수준	-0.117(0.152)
주관적 이념 성향	-0.308*** (0.113)
성별	-0.43(0.536)
연령	0.175(0.129)
상수	-2.042(3.558)
사례 수(N)	200
가능도비(Likelihood Ratio)	-74.958
가능도비 검정(LR Test)	Likelihood $\chi^2 = 29.23(p<0.01)$

*p<0.1; **p<0.05; ***p<0.01

았다.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이념 성향 또한 한나라당 지지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즉 보수적 조사 대상자의 경우 한나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표 10〉 통합민주당 지지에 대한 승산비

변수	계수(β : Coefficients)	승산비(Odds Ratio)	표준편차1단위 변화에 따른 승산비
민주당 이념평가	-0.216*	0.806	26,066
민주당 호감도	0.013	1.014	18,765
남북 문제 해결 정당-통합민주당 선택	0.795*	2.214	0.501
출신지	-0.227	0.797	0.973
경제 수준	-0.117	0.89	1.513
주관적 이념 성향	-0.308***	0.735	1.983
성별	-0.43	0.65	0.501
연령	0.175	1.191	1.909

*p<0.1; **p<0.05; ***p<0.01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조사 대상자의 한나라당 지지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1.4배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통합민주당의 경우에도 동일했다. 남북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 통합민주당을 선택한 경우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승산비에서 나타난 남북 관계 발전 사안에 적합한 정당으로 통합민주당을 선택한 경우 통합민주당을 총선에서 지지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2배 높았다.

IV. 결론과 함의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유권자가 개별 정당에 대해 갖는 ‘인지, 이해, 감정, 호감도, 평가 그리고 기대’ 로 이해하고, 정당 인식과 정당 지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는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좌-우 이데올로기라

는 일원화 또는 단순화된 차원에서 전체적 경향성 위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균열 구조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 이슈를 선택하고,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조사 대상자들은 어떤 정당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물어 보다 구체적 이슈 중심 접근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조사 대상자들은 정당 간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사 대상자들의 정당 간 차별성 인식은 정당별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셋째, 경제 발전의 경우 조사 대상자들은 한나라당이 적합한 영역으로 인식했고, 통합민주당은 남북 관계 발전 영역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넷째, 조사 대상자들의 정당별로 상이한 문제 해결 능력 영역 인식은 그들의 정당 지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경제 발전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나라당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조사 대상자들의 한나라당 지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실 한국 정당의 미약한 시민 사회-정부 연계 기능, 진성 당원의 부재 그리고 정당 연속성의 부재 등은 그동안 정당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발견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당이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일정 형태로 유권자 심리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유권자 집단에 새로 진입한 젊은 유권자들이다. 향후 정당 정치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의 대표성 문제이다. 본 연구는 대학 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자료를 활용했다. 전체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발견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슈 영역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 성장과 남북 관계라는 두 사안을 사용했다. 보다 다양한 이슈 영역의 개발을 통해 한국 사회 균열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정당 정치와의 조응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1〉 남북 관계 발전 문제 해결 정당-통합민주당 선택에 대한 승산비

변수	계수(β : Coefficients)	승산비(Odds Ratio)	표준편차1단위 변화에 따른 승산비
민주당 이념 평가	-0.019**	0.98	26,066
민주당 호감도	-0.018	0.982	18,765
출신지	-0.092	0.912	0.973
경제 수준	-0.065	0.937	1,513
주관적 이념 성향	-0.005	0.995	1,983
성별	-0.545	0.58	0.501
연령	-0.18*	0.835	1,909

*p<0.1; **p<0.05; ***p<0.01

[참고문헌]

- 가상준·윤종빈. 2009. “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사학회 공동 학술회의 발표논문.
- 김영태. 2009. “정치사회화와 정당태도.”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2권 제2호, pp. 97-116.
- 김준석·김민선. 2009. “도전자의 역량이 선거구의 투표율과 도전자의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6집 제3호, pp. 73-98.
- 박광배. 2007. 『범주변인분석』. 서울: 학지사.
- 이재철. 2006. “정치문화와 투표결정: 인지, 감정, 평가.” 『2006 한국선거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II』. 서울: 푸른길.
- 정한울. 2007. “한국에서 경제투표는 가능한가.” 이내영·이현우·김장수 공편. 『변화하는 한국의 유권자』. EAI.
- 조대엽. 2009. “신갈등사회와 정당정치의 위기.”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사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 Arian, Asher, and Michal Shamir. 2008. “A decade later, the world had changed, the cleavage structure remained: Israel 1996-2006.” *Party Politics*, V. 14, N. 6, pp. 685-705.
-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dge, I., D. Robertson, & D. Hearl. 1987. *Ideology, Strategy, and Party Change: Spatial Analyses of Post-war Election Programmes in 19 Democrac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ton, R.J., & M.P. Wattenberg, eds. 2000.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Finkel, Steven. 1993. “Reexamining the minimal Effects Model in Recent Presidential Campaigns.” *The Journal of Politics* 55: 1-21.

- Lodge, Milton, and Ruth Hamill. 1986. "A partisan schema for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505-520.
- Lane, Jan-Eik, and Svante Ersson. *Politics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4th Edition. London: Sage.
- Kiewiet, Roderick. 1991. "Policy oriented voting in response to economic issu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448-459.
- Klingemann, H.-D., A. Volkens, & J. Bara. 2006. *Mapping policy preferences: II. Estimates for parties, electors and government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uropean Union and OECD, 1990-2003*.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t. 1999. *Patterns of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 1963.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Garden City: Doubleday & Co., Inc.
- Rohrschneider, Robert, and Stephen Whitefield. 2009. "Understanding Cleavages in Party Systems: Issue Positions and Issue Salience in 13 Post-Communist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 42, N. 2, pp. 280-313.
- Stoll, Heather. 2008. "Social Cleavages and the Number of Parties: How the measures you choose affect the answers you ge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 41, N. 11, pp. 1439-1465.
- Webb, Paul, and Stephen White. 2007. *Party Politics in New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Pilot Essay on People's Party Perception and Support

Park, MyoungHo | Dongguk University

This essay understands people's perception of political party as their recognition, comprehension, emotion, feeling, evaluation and expectation on individual party, and tries to understand its influence upon the electorate's party support. Unlike previous studies on the topic, this study focuses on the specific issues that represent social cleavage structure in Korea. Findings are: people understands that there are clear differences among parties in terms of their capacity to take care of certain issues. The different perception of party depending on different issue area seems to influence on people's party support. These findings imply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their roots in peoples' understanding, even though it is temporary conclusion.

Key Words | party perception, party supprt, issues, social cleavage, Korean politics